

반석인가? 모래인가?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기서 “반석”은 “나의 이 말”, 즉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르침을 뜻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11에 의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여기서 “터”는 기초(foundation)를 뜻한다. 결국 오직 우리가 지을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고린도전서 10:4에서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the rock was Christ)”고 하였다.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결국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씀인 것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고 신앙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다(마 16:16-18).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한 신앙 고백,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곧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참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석, 기초 돌로만 모셔놓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위로 좌우로 쌓아 올라가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삶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각자의 집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씩 믿음의 집으로 지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라고 말씀하신다. 결단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야망과 목적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종종 신자들과 교회들이 나의 계획과 방법과 노력으로 믿음의 집을 건축하려 한다. 그러나 거룩은 본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과 21절에 그 해답이 있다. 먼저 15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줌으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에게 대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나에게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하였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로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또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께서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대언하여 사랑으로 말해주고 선포하고 주장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든든한 믿음의 반석

같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석만 예수님으로 삼고 나의 개인적인 야망과 목적을 이루려는 자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자가 짓는 집이 반석위에 지은 집이겠는가!